

코로나19 시대의 대학생 진로장벽이 취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적응성과 자아탄력성의 병렬매개효과와 매개된 조절효과

윤일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COVID-19: Focusing on Multi-parallel Mediation Effect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and Ego-resilience

Il-Hyun Yun

Professor, School of Social Work, Gwangj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취업준비행동 관계에서 진로적응성과 자아탄력성의 병렬매개효과와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실증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K대학교 23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상관분석과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첫째, 진로장벽, 진로적응성, 자아탄력성, 취업준비행동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진로장벽과 취업준비행동 관계에서 진로적응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탄력성은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제언과 후속연구를 위한 논의를 하였다.

주제어 : 융합, 진로장벽, 진로적응성, 자아탄력성, 취업준비행동

Abstract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COVID-19: Focusing on Multi-parallel Mediation Effect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and Ego-resilience. A survey was conducted on 238 students of K University. The result of this study. First, Career barrier, career adaptability, ego-resilience,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ll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mediating effect of career adaptation and self-elastic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hird, Ego-resilience was found to have a Moderated Mediation Effect. Based on this study, suggestions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discuss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made.

Key Words : Convergence, Career barrier, Career adaptability, Ego-resilienc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1. 서론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은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여러 영역에서 변화와 혼란을 야기했다. 대학생의 시기는 자신의 성장과 역량을 축적하고, 진로와 취업을 준비하여 사회

로 진출하게 되는 단계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코로나19 시대의 대학생 사회진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학졸업생의 취업률은 2015년 64.9%에서 2019년 63.4%로 감소 추세에 있다[1]. 통계청(2021.2)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Corresponding Author : Il-Hyun Yun(kwinae@hanmail.net)

2020년 2월 대학이상 고용은 74.5%에서 2021년 2월 73.4%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전반적인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대학졸업생의 취업률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시대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문제는 세계적인 추세로 일본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실직자 증가, 취업경쟁률급증, GDP 20%이상 폭락 등으로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3]. 영국은 Brexit이후 경제난과 결혼문제로 인한 청년취업문제가 지속하였고[3], 미국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대량해고로 대학생의 취업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4]. 팬데믹 현상에 따른 직업정보 부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진로 불안정 등의 진로장벽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4]. 취업준비행동은 직업탐색 활동과 진로준비 행동의 중간활동 정도에 해당하는 개념[5]으로 취업 정보 검색부터 취업을 위한 취업문제 해결 과정으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6].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산업구조와 맞물려 대학생의 취업 관심 증가에 따른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2017년부터 활성화되었으며[7]. 영향요인으로 진로장벽[8], 진로적응성[9], 진로탄력성[10]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 및 취업계획에 있어 목표를 실현하는데 내·외적 방해요인들을 의미한다[8]. 진로장벽은 취업준비행동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12]과 긍정적인 영향[13]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진로장벽과 취업준비행동 사이에 직선적인 관계보다도 두 관계 사이에서 매개하는 다른 변수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14].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에 따라서 유의미한 결과를 시사한다. 진로장벽을 극복하면서 대학생 개인의 진로와 취업을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진로장벽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이 두 변인의 관계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진로적응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와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진로적응성은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로에 대한 변화나 장벽에 적응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15]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예상하지 않은 사회 환경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도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는 역량이나 태도이다. 문제행동과 스트레스 감소[16], 진로성공[17]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진로발달과 진

로를 촉진하게 한다[18]. 자아탄력성은 코로나19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애기치 않은 갈등상황이나 불균형과 같은 상황 등에서 자아의 통제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특수한 역동적인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19]. 자아탄력성은 진로장벽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해줄 수 있으며[20],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21].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대학생의 진로장벽을 자아탄력성이 낮추어주고 취업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팬데믹 시대에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취업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과 자아탄력성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융합적인 변수를 구성하였다. 취업준비행동에 진로장벽은 정적과 부적의 영향이 혼재한 연구[12,13]가 있고, 자아탄력성은 진로장벽의 부적 영향을 완충해주는 특성[20]이 있으며, 진로적응성은 긍정적인 개인의 능력[15]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코로나 19 시대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과 자아탄력성의 영향을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장벽과 취업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과 자아탄력성은 매개하는가?

둘째, 자아탄력성은 진로적응성이 진로장벽과 취업준비행동 간의 매개 관계를 조절하는가?

2. 연구전개 방법

2.1 연구 설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대의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취업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융합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차원 개념의 병렬매개 분석을 통하여 하위변인을 동시에 분석하고,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 분석을 통하여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Fig. 1과 같이 알아보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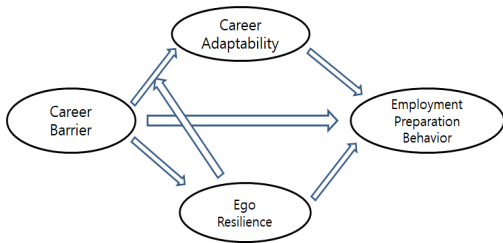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To Study

2.2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K광역시에 소재한 K대학 1곳을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표본은 비확률적 표집방법으로 2021년 3월2일부터 3월 12일까지 총 300명에게 직접 배포하여 수거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243부가 수집되었으며 분석할 수 없는 5부를 제외하고 238부를 분석하였다. 대상자 중 남성 67명(28.2%), 여성 171명(71.8%)이었다. 학년별로는 3학년 139명(58.4%), 4학년 99명(41.6%)이었다. 전공별로는 인문사회 113명(47.5%), 보건계열 72명(30.3%), 공학 계열 42명(17.6%), 문화예술계열 11명(4.6%)이었다. 취업희망은 전공 189명(79.4%), 다른 분야 49명(20.6%)이었다. 직업 관련 경험이 있는 경우 159명(66.8%), 없음이 79명(33.2%)이었다.

2.3 연구도구

설문 구성은 4개 변수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방식으로 '전혀 아님' 1점 ~ '매우 그럼'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구성 변수가 높다.

진로장벽은 진로 장애 탐색을 위해 김은영 (2001)[22]이 사용한 KCBS(대학생 진로 탐색 장애검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5개 하위요인으로 직업정보부족(5), 흥미부족(4), 자기명확성부족(7), 미래불안(6)으로 총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Cronbach's α 는 .944이었다.

진로적응성은 Rottinghaus 등(2005)의 CFI를 변안 및 타당화한 최옥현과 김봉환(2006)[23]이 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6문항 단일요인으로 개인의 미래 변화에 대처하고 긍정적인 능동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능력, 직무 책임의 편안한 상태, 진로에 대한 변화의 회복능력 등을 측정하였다. Cronbach's α 는 .902이었다.

자아탄력성은 성오현(2013)[24]이 사용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5문항 단일요인으로 일에 긍정적인

마음대처, 문제 핵심파악 능력, 긍정적인 생각과 능동적인 행동,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될 것이라는 생각, 스트레스에 융통성 있는 적응 등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Cronbach's α 는 .869이었다.

취업준비행동은 어윤경 등(2011)[25]이 사용한 도구를 수정하여 4개의 하위요인 2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공식적 취업정보탐색(5), 비공식적 취업정보탐색(5), 예비적 취업준비(7), 적극적 취업준비(6)로 구성되어 측정하였다. Cronbach's α 는 .943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연구에서는 SPSS 23.0을 이용하여 우선은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분석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Hayes(2013)[26]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Hayes는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분석 시 각 변수의 개별적인 간접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융합검증방법

3.1 진로장벽, 진로적응성, 자아탄력성, 취업준비행동의 상관관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장벽, 진로적응성, 자아탄력성, 취업준비행동의 모든 요인들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Table 1.과 같이 상관계수가 .198 ~ .555의 범위로 0.7이하의 범위를 보여 다중공선성 위험은 없었으며, 선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areer Barrier, Career Adaptability, Ego-Resilienc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Correlations Variables

Variable	1	2	3	4
1	1			
2	.198***	1		
3	.349***	.439***	1	
4	.351***	.552***	.555***	1

1 Career Barrier, 2 Career Adaptability, 3 Ego-Resilience, 4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 $p < .05$, ** $p < .01$ *** $p < .001$

3.2 진로적응성과 자아탄력성 병렬매개효과

진로장벽이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과 자아탄력성의 병렬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Hayes(2013)[26]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였다. Bootstrapping은 5,000회로 지정 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Table 2와 같이 분석결과 진로장벽은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185, p<.001$), 진로적응성도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beta=.334, p<.001$). 또한, 진로장벽은 자아탄력성에 유의하였고($\beta=.371, p<.001$), 자아탄력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beta=.265, p<.001$).

Table 2. Multi-parallel Mediation Effect

	β	se	t	95% level	
				LLCI	ULCI
Parametric(Dependent variable : 2)					
constant	2.769	.203	13.642**	2.369	3.169
1	.185	.060	3.097**	.067	.303
Parametric (Dependent variable : 3)					
constant	2.037	.220	9.275***	1.605	2.470
1	.371	.065	5.724***	.243	.499
Dependent variable(Dependent variable:4)					
constant	.892	.188	4.738***	.521	1.263
1	.135	.044	3.098**	.049	.221
2	.334	.048	6.895***	.238	.429
3	.265	.045	5.922***	.177	.353

1 Career Barrier, 2 Career Adaptability, 3 Ego-Resilience, 4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 $p<.05$, ** $p<.01$ *** $p<.001$

진로장벽에서 취업준비행동 간 경로의 총효과는 $\beta=.295(p<.001)$ 이었다가 매개변수인 진로적응성과 자아탄력성이 투입되면서 진로장벽에서 취업준비행동 간 총 효과는 직접효과 $\beta=.135(p<.01)$ 로 감소하였다. 진로장벽이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진로적응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점, 진로장벽은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점, 그리고 진로장벽이 취업준비행동 간에 경로의 총 효과가 직접효과보다 큰 점은 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개

효과 인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Table 3. Career Adaptability and Ego-Resilience Indirect effect

	β	se	95% level	
			LLCI	ULCI
Total	.160	.045	.072	.249
1	.062	.036	.004	.145
2	.098	.036	.035	.177

1 Career Adaptability, 2 Ego-Resilience,

Table 3과 같이 진로적응성과 자아탄력성의 간접효과를 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모두 Bootstrapping의 상한 값과 하한 값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증명되었다.

3.3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진로장벽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자아탄력성이 조절 매개하는지 분석을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7번을 이용하였다. Bootstrapping 5,000회 지정 및 신뢰구간 95%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인과 조절 변인을 평균중심화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진로장벽은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beta=3.418, p<.001$), 진로적응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449,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진로장벽과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항은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쳐($\beta=-.175, p<.001$) 조절효과가 있었다. 진로장벽, 자아탄력성, 진로적응성 간의 각 변인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지만, 진로장벽과 자아탄력성의 동시에 상호작용할 경우 진로적응성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아탄력성이 조절적인 기능할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진로장벽과 취업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이 매개하는데, 이 관계는 자아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Table 4. Ego-resilience Moderated mediation effect

route	β	se	t	95% level	
				LLCI	ULCI
parametric model(Dependent variable : career adaptability)					
	3.418	.042	82.437** *	3.337	3.500
1	.021	.058	.371	-.093	.135
2	.379	.054	7.024 ***	.273	.485
3	-.175	.050	-3.506**	-.274	-.077
parametric model(Dependent variable :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1.812	.164	11.082 ***	1.490	2.134
4	.212	.045	4.761 ***	.124	.299
5	.449	.047	9.472 ***	.355	.542

- 1 Career barrier→career adaptability
 - 2 Ego-resilience→career adaptability
 - 3 Career barrier x ego-resilience→career adaptability
 - 4 Career barrier→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 5 Career adaptability→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 *p < .05, **p < .01 ***p < .001

자아탄력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조건부효과는 Table 5와 같이 자아탄력성 값이 M-1SD(-.797)에서만 유의하였고, M과 M+1SD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자아탄력성이 M-1SD에서 진로장벽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였다.

Table 5. Ego-resilience Conditional effect

ego-resilience	β	se	t	95% level	
				LLCI	ULCI
-.797	.161	.066	2.446*	.031	.291
.000	.021	.058	.371	-.092	.135
.797	-.118	.074	-1.591	-.264	.028

조절변수인 자아탄력성의 특정 값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경유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부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Table 6과 같이 진로장벽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단순 기울기는 자아 탄력성 값이 M-1SD(-.797)에서만 유의하였다. 조절된 매개지수는 -.079로 나타났고, 95%의 신뢰구간에서 하한 값과 상한 값에(-.140, -.072)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은 진로장벽이 낮으면 진로적응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높은 진로적응성을 매개로 하여 취업준비행동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장벽이 진로적응성을 통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아탄력성이 평균이하의 경우에만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Table 6. Ego-resilience Conditional indirect effect

Conditional indirect effect	β	se	95% level	
			LLCI	ULCI
M-1SD	.072	.036	.007	.148
M	.010	.032	-.048	.078
M+1SD	-.053	.045	-.140	.040

index of moderated mediant	se	95% level	
		LLCI	ULCI
-.079	.031	-.140	-.072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응하고 있는 238명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진로장벽과 취업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와 자아 탄력성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순 매개 효과와 단순조절 효과 연구보다는 이들 연구모형을 결합하여 병렬매개와 조절된 매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진로장벽, 진로적응성, 자아탄력성, 취업준비행동 간에 상과를 살펴본 결과 변인 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취업준비행동은 진로적응성과 자아탄력성과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진로장벽이 부적 영향[13,22]이 많은 변인이었으나 코로나19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진로적응성과 자아탄력성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계성이 낮은 것은 진로장벽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의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이 취업준비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취업준비행동을 위한 긍정적 심리정서와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취업지도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진로장벽이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고, 진로적응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장벽이 취업준비행동 정적인 영향이 있다[12]는 연구는 지지하지만, 진로장벽이 부적 영향의 요인[8,12]이 있다는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진로장벽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 19

대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벽은 변화하는 환경요인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상황대처 능력 역량을 갖추었을 때 취업준비행동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상황이나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대처 능력을 위한 교육적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진로장벽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진로장벽의 완충요인이라는 연구[20]들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코로나19 대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자기주도 준비역량을 습득하는 지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넷째, 진로장벽과 취업준비행동 간에 진로적응성과 자아탄력성은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적응성이 긍정적인 개인의 능력[15]이 있다는 연구와 코로나19이후 개인특성과 진로적응성의 매개 효과[27]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진로적응성과 자아탄력성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역량과 심리적인 자신감이 취업준비행동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준비를 위해서는 취업을 위한 기술이나 학습도 중요하지만 환경요인이나 개인의 심리 정서적 요인도 고려한 전략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과 취업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이 매개하는데, 자아탄력성이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이 진로적응성을 통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누구에게나 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아 탄력성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좌절 등에 인내와 조절로 스트레스 상황에 보편적인 적응 기제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더욱 융통성 있고 유연한 기제를 발휘하는 연구들[28]과도 맥을 같이한다. 코로나 19 시대의 대학생들에게 심리안정과, 취업 정보 개별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 등의 자기 주도에 의한 취업 지도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째,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은 진로장벽이 낮으면 진로적응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높은 진로적응성을 매개로 하여 취업준비행동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대학생은 환경적 요인과 취업준비행동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자아탄력성이 낮은 집단에게는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취업준비행동을 위한 교육적 전략으로는 취업 준비를 위한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을 파악하여 수준별 사례관리에 의한 취업 관리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19 시대의 대학생을 위한 대학의 체계적인 취업역량개발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국외대학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29], 미시간 주립대학의 대학중심의 진로개발센터, 미국 미주리 대학의 학과 단위의 진로센터,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중앙진로센터와 단과대학과의 절충형 진로개발 시스템, 미네소타 주립대학의 개인 중심 진로상담센터, 일본 와세다 대학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커리어센터,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학습기술과 자신의 전공 상담 병행의 커리어센터,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기업연계 커리어센터 등 지역과 대학의 특성에 맞게 사회적 상황과는 별개로 대학들이 취업과 진로지도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대학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저학년부터 단계적인 계획에 의한 개인 중심 관리의 역량 강화와 함께 체계적인 취업지도 관리체계가 정부와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관산학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대학생들의 개인 심리적 안정과 취업 준비의 내적 동기 유발을 위한 비교과프로그램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생들의 진로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취업준비를 위한 정보와 자기 주도에 의한 취업 준비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의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대학생의 취업준비 지도를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환경요인을 고려한 취업 지도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자기 주도적인 환경대처능력의 역량개발을 위한 취업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또한 자기 보고식 측정 오류의 한계가 있고, 본 연구 이외도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집단별, 전공별 변인을 추가하여 병렬매개 효과와 조절된 매개 효과의 취업준비행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http://www.unipress.co.kr>.
- [2] <http://www.kostat.go.kr>.
- [3] <https://namu.wiki/w/%EC%B2%AD%EB%85%84%EC%8B%A4%EC%97%85>
- [4] <http://www.inews24.com/view/1298616>
- [5] S. O. Shin. (2020). Nursing students' Feelings of COVID-19, Work Value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12), 75-81. DOI : 10.22156/CS4SMB.2020.10.12.075
- [6] J. K. Lee & S. K. Lee. (2007). An Analysis of Career Expectation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Employed Adolesc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20(3), 121-137.
- [7] J. S. Ahn. (2017). The differences of Grit Occupational Motive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Arts and food service management by background variables.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7(4), 69-92.
- [8] Y. H. Lee e J. Y. Kim. (2019). The trend and issues of research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4), 805-834.
- [9] E. R. Sohn. (2001).The relation of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female college students and career deci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2), 251-262.
- [10] Y. E. Kim. (2018).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career adaptability in korea- analysis of journals from 2006 to 2017. *Journal of Counseling and Research* 1(1), 115-133.
- [11] N. W. Kang & J. H. Kim. (2016). Study on research trend of career resilience. *The Journal of Humanities*, 41(8), 181-208.
- [12] J. H. Kim. (2019). The effect of career barriers on employment transition and intention in the economically inactive young adults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9(2), 1-26. DOI : 10.35273/jec.2019.9.2.001
- [13] D. A. Luzon (1996).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occupational barrier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2(4), 239-248. DOI:10.1007/BF02259993
- [14] J. L. Swanson. & D. K. Tokar. (1991).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 92-106.
- [15] P. J. Rottinghaus., S. X. Day, & F. H. Borgen. (2005). The career futures inventory-a measure of career-related adaptability and optimism.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1), 3-24.
- [16] A. Hirschi. (2009). Career adaptabil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Multiple predictors and effect on sense of power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2), 145-155.
- [17] E. D. Pulakos, S. Arad, M. A. Donovan & K .E. Plamondon. (2000). Adaptability in the workplace-development of a taxonomy of adaptive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4), 612.
- [18] B. H. Ja & S. H. Park. (201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adaptation, self-leadership, learning commitment, and career adapta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6), 104-111. DOI : 10.22156/CS4SMB.2019.9.6.104
- [19] Y. B. Park. (2017). The convergence effect of job stress of counselors on sexual orientation-Focusing on ego resilienc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6), 193-199. DOI : 10.22156/CS4SMB.2017.7.6.193
- [20] M. S. Yeo. (2017).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of unemployed person's career Barriers, ego-resilience, job search 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7(1), 95-119.
- [21] J. Y. Kim & K. H. Lee. (2014).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testing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27(3), 1-25.
- [22] E. Y. Kim. (2002).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 inventor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4(1), 219-240.
- [23] O. H. Choi & B. W. Kim. (2006). Career optimism and adaptability of the college students-the korean validation study of the career futures inventory(CFI).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 7(3), 821-833.
- [24] O. H. Sung. (2013).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job demands, burnout, job engagement and customer orientation of hotel service encounter employees-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The Graduate School of Sejong University.
- [25] Y. K. Au, D. I. kim, J. Y. Lee & Y. J. Chung. (2011).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est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7(3), 267-291.
- [26] A. F. Hayes.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27] H. M. Park & N. H. Yoo. (2020).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eer adaptability between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career decision making difficulties and occupational engagement with university students-Focusing on the career adaption mode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3(2), 89-110.
DOI : 10.32341/JCER.2020.6.33.2.89
- [28] N. R. Kim & Y. J. Woo. (2021). The effects of self-compassion, self-resilience and intolerance of uncertainty on job-seeking stress: For job seekers in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7). 639-654.
DOI : 10.22251/jlcci.2021.21.7.639
- [29] S. Y. Yoon. (2021). *The Study about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about Career Counseling System of University Students*. Kyung Hee University.

윤 일 현(II-Hyun Yun)

[정회원]



- 2002년 2월 :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1년 2월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행정, 지역사회복지, 웰니스, 4차 산업혁명

· E-Mail : kwinae@hanmail.net